

# 日本 석유산업의 구조개편과 석유정책 방향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

이 자료는 최근 日本통산성의 자문기관인 石油  
심의회(石油)의 석유산업기본문제검토위원회가 발표한 日  
本석유산업 및 석유정책의 방향에 관한 보고서를  
간접 입수,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 註)

## I. 머리말

1. 석유는 현재 日本에 있어서 1차에너지공급의 약 60%로 大宗을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경제상의 매우 중요불가결한 에너지인 바, 日本은 거의 全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또 그중 약 70%는 中東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석유공급에 있어서 가능한 한 안정을 확보해 가는 것은 日本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 석유공급의 안정을 확보함에 있어서 그 중추적 기능은 석유산업이 수행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日本의 석유산업은 지난 81년 이후 여러차례의 본심의회의 제언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제반 구조개편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석유산업의 경영기반은 취약한 상황이며, 또 최근의 석유제품수입의 확대에 따라 석유시장이 더욱 국제화, 円高의 진전등 석유산업을 둘러싼 환

경은 크게 변화되고 있어 앞으로 강인한 산업기반의 형성을 지향하여 체질개선과 기능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의 국제석유수급동향은 비교적 안정화되고 있으나, 앞으로의 국제석유정세동향을 전망하면 IEA(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인식의 일치를 본 바와 같이, 오는 90년대에는 석유공급이 불안정화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점에서도 석유산업의 진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국제석유정세하에서는 정부로서도 석유공급의 불안정화에 대비하여 적절한 기능을 수행해 가는 것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3. 이와같은 인식하에서 본위원회에서는 작년 11월에 발족된 이후 8개월간에 10회의 심의회의를 가졌다.

그 결과 日本의 석유의 안정공급확보를 위한 시스템구축을 위해 앞으로 정상시의 석유공급에 대해서는 석유산업의 자율적 활동에 맡기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정부는 안정확보의 관점에서 민간활동을 보완하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기본인식하에 정부와 민간기업의 역할분담을 전제로 하여 다음 3가지 과제를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 정부는 계속 석유정책의 소프트화를 도모하는 한편, 석유산업의 자율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그 구조개편

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평상시의 주요규제인 석유산업의 생산·판매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앞으로 5년 이내에 일정한 스케줄하에 완화시켜 나간다.

둘째, 석유위기에 대비하여 석유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정부는 석유비축의 확충, 비상시대응체제의 정비등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강구한다.

셋째, 석유산업은 이와같은 규제완화를 포함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엄격한 자기책임하에 정제부문의 합리화, 元賣의 집약화, 유통부문의 합리화등을 통해 철저한 코스트절감, 제품가격체계의 국제화, 강력한 공급체계의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기대된다.

4. 본제언에서 제시한 방향은 一朝一夕에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日本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정세를 감안하여 볼 때, 오는 90년대까지는 서두를 필요가 있으며, 석유수급이 비교적 안정화된 현재야말로 그 절호의 시기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는 본제언에 제시된 스케줄하에서 정부, 민간이 각각 해야 할 부문을 착실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 II. 검토의 기본인식

### 1. 석유산업 현황

#### (1) 취약한 석유산업의 경영기반

日本の 석유산업은 그 제품특성과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파당경제체질인데다가 제2차 석유위기 이후 석유수요의 대폭적인 감퇴에 대응한 구조적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그 경영기반이 취약한 형편이다. 따라서 과거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석유심의회 의 答申에서 과잉설비의 처리, 설비고도화를 중심으로 한 정제합리화, 유통부문의 합리화 및 元賣집약화등의 구조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해 왔다. 이와 같은 정세하에서 석유산업은 지난 83년에 약 100만 b/d의 과잉설비의 처리, 84년 이후 13개 元賣기업이 현재에는 11개社 7개그룹으로 집약화되는 등 대응해 왔으나, 유럽의 석유산업이 정유공장, 주유소의 대폭적인 통폐합 등 근본적인 합리화를 추진해 온 것과 비교하면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 (2) 석유제품수입의 본격화

석유제품 수입에 있어서는 과거부터 수입해온 重油, 나프타 등 외에 작년부턴 휘발유, 등유, 경유도 수입하기 시작했다. 이런 유종의 수입은 86년에는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각사의 자주적 판단하에 수입한 결과 상당한 양의 수입이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면 휘발유는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로, 美國과 유럽에서의 비율이 5~6% 정도인 것에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작년부턴 석유제품의 수입이 개방되면서 상당한 물량이 수입됨으로써 日本의 석유제품 공급구조는 급속히 변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정세하에서 연산품인 석유제품에 있어서 수입량의 변동이나 수요구조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안정적 공급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수입과 국내정제와의 탄력적 조화를 보다 원활히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 (3) 급속한 円高의 진전

작년의 G5 이후 円高의 진전이 빨라지고 있으며, 이와같은 급격한 교역조건 변화에 대해 석유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고, 또 日本 전체로서도 내수의 확대 및 경제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코스트의 절감은 국민경제상 긴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산업은 근본적인 합리화를 통해 코스트절감을 도모하며, 국내의 수요구조의 상이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가격수준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 (4) 금후의 국제석유정세

장기적으로 앞으로의 국제석유정세를 전망하면 세계적으로 석유공급의 中東의존도가 또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특히 최근의 油價하락을 배경으로 한 신규유전개발의욕의 감퇴, 석유수요의 증대등으로 미루어 볼 때, 오는 90년대에 석유공급이 불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석유의 안정적 조달·공급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산유국·소비국의 대화, 외교상의 노력과 석유비축의 확충등의 대응과 함께 경제적 측면

앞으로의 방향으로는 정상시의 석유공급은 강력한 기반을 가진 석유산업의 자율적 활동에 일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정부는 石油의 에너지로서의 중요성과 국제정치상품성에 비추어 안정확보의 관점에서 石油危機를 포함한 긴급시에 공급이 가능한 한도내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민간의 활동을 보완하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에서는 원유의 안정적 조달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강력한 체질을 가진 석유산업이 국내에 형성되는 것이 불가결한 전제이다.

(5) 강력하면서 유연한 존립기반을 가진 석유산업 확립의 필요성.

가. 위에서 언급한 제반정세에서 볼 때, 앞으로도 1차 에너지공급의 大宗을 석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日本으로서 석유공급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① 연산품인 석유제품의 수입과 국내정제와의 탄력적인 조화가 자율적으로 그리고 원활히 이루어지고,

② 국내의 수요구조의 상이등을 감안하여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가격수준에서의 석유제품의 공급이 이루어지며,

③ 국제적으로 석유공급이 불안정화되는 상황하에서도 석유의 안정적 조달, 원활한 국내공급이 실현되도록 경제적 여건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그러나 석유공급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日本의 석유산업은 현재로서는 여기에 걸맞는 경영기반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2. 원인으로서는,

① 日本의 석유산업은 개발부문과 분리된 형태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歐美메이저에 비해 정제, 판매부문과 같이 석유사업중에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를 중심적 사업으로 삼아 왔고,

② 제2차대전후 석유정제 재개때의 상황 때문에 산업조직형태면에서 외자계, 민족계등 많은 다양한 기업이 집약되지 않은채 존재해 왔기 때문에 과당경쟁체질이 되는 등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원인이 있으며,

③ 특히 제2차 석유위기 이후 세계적인 석유수급구조 변화에 대응한 적정산업규모로의 축소 등 근본적 합리화 과제에 관해 歐美에 비해 그 대응이 늦어지고 있고,

④ 지금까지 석유의 안정공급을 위한 규제가 이루어짐으로써 뿌리깊은 행정의존체질이 배양되었으며, 적정한 이익의 확보 보다는 시장점유율경쟁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경영자세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등 석유산업 자체의 문제도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日本 석유산업은 산업구조면에서 歐美석유산업과 결정적인 차이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합리화, 효율화, 경영의식의 개혁에 노력하고, 그 존립기반을 강력하고 유연한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일이 시급하다.

2. 石油政策의 기본방향

(1) 석유의 안정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官民역할분담의 방향

석유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는 지난 84년 6월 4일의 小위원회의 보고서를 비롯하여 종래부터 「적극적인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민간활력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정공급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개입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축소·완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해왔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앞으로의 방향으로는 정상시의 석유공급은 강력한 기반을 가진 석유산업의 자율적 활동에 일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정부는 석유의 에너지로서의 중요성과 국제정치상품성에 비추어 안정확보의 관점에서 석유위기를 포함한 긴급시에 공급이 가능한 한도내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민간의 활동을 보완하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규제완화를 통한 강력하고도 유연한 석유산업의 형성

한편, 석유산업으로서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메커니즘의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그 활성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방

향은 세계적 조류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최근 프랑스에서는 지난 28년 이후 전지해운 석유정책을 재검토, 그 운용에 있어서 대폭적인 완화를 단행했고, 또 이탈리아, 캐나다, 포르투갈등에서도 가격규제, 수출규제등에 대해 수차에 걸쳐 완화조치를 단행했다.

日本에서도 앞으로 석유산업의 강력하고 유연한 존립기반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국제적 동향을 감안하여 석유산업 자체의 활발한 경영노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3) 규제완화의 방향

이와같은 관점에서 정부는 석유산업의 활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자율적인 산업질서의 전개가 가능하도록 석유산업에 관한 諸규제, 특히 평상시의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가져오는등의 과도기적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규제완화를 확실히 실행에 옮기고, 또 그 진전에 대응한 석유산업의 적극적인 대응과 경영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관점에서 일정한 스케줄을 밝혀 단계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4) 안정확보의 방향

국제석유수급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는 90년대에 가면 다시 中東의존도가 높아지고 석유수급이 불안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석유공급을 석유산업의 자율적 활동에 일임하는 것을 금후의 기본방향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석유의 절대적 공급량이 부족하게 되는 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 정부는 국민생활에의 적절한 석유공급을 실현시키기 위해 일정한 기능을 수행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정부는 안정확보의 관점에서 산유국과 소비국대화의 촉진등 산유국과의 관계 긴밀화 외에 국가비축의 확충, 석유자주개발의 촉진등 일정한 석유 확보, 긴급시의 적절하면서도 기동성있는 公權力의 발동, 그리고 긴급시에 있어서도 원활하면서도 적절한 공급이 가능한 석유공급체계의 구축과 유지등 일정한 보완책을 강구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Ⅲ. 금후 石油産業의 방향

### 1. 기본방향

석유산업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산업으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1) 철저한 합리화에 의한 코스트절감 및 제품가격체계의 국제화.

석유시장의 국제화등에 대응하여 국내의 수요구조의 상이등을 감안,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가격수준으로 석유제품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제, 유통부문을 통해 철저한 합리화에 의한 코스트절감에 노력한다.

또 정제시설고도화를 통해 국내정제의 高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한편 低부가가치제품의 수입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영기반의 강화를 도모하고, 경합에너지가격과의 조화에도 유의하면서 소비자등 관련자의 이해를 넓히면서 제품가격체계의 국제화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강력한 공급체계의 구축

석유제품의 공급체계에 있어서 그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긴급시 석유의 신속하면서도 적절한 공급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평상시부터 수입, 정제, 유통 및 개발의 각 기능을 유기적이면서 一體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일관 석유회사 내지는 이에 준하는 그룹이 중심이 되는 공급루트를 軸으로 하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석유의 안정공급의 전제가 되는 것은 확실한 원유조달이기 때문에 석유회사들은 정보수집능력의 강화, 전문인력양성등을 통해 원유조달능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2. 금후 石油産業의 방향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대응책으로서는 각기업이 자주적인 대응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석유산업은 국내외의 환경변화, 또 정부의 대응스케줄을 염두에 두고, 엄격한 자체책임하에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검

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때 석유산업은 지나친 세어의식의 배제, 사후조정의 철폐등 그 경영기반을 약화시켜온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인 안이한 경영자세를 시정하고 자기책임원칙에 입각하여 건전한 경영체질을 위한 개혁을 진지하게 추진하는 것이 기대된다.

(1) 정제부문의 합리화

가. 과잉시설의 처리

日本の 원유처리능력(상업증류장치능력)은 수요의 구조적 감퇴에 따라 대폭적인 과잉상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83년에 약 100만b/d의 시설을 처리한데 이어 86년까지 3년간 각 기업 그룹이 자주적 판단하에서 70만~100만b/d의 시설처리에 착수했으나 그 첫해인 86년에는 전체적으로 20만b/d밖에 처리되지 않아 충분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과잉시설처리는 일시적으로는 기업에 큰 부담을 주지만, 정유공장의 적정한 立地전개를 감안하여 비효율적인 정유공장, 상업증류장치계열단위로의 폐쇄, 폐기를 과감하게 추진하여 효율적인 시설로 대체하여 집중생산을 도모할 경우, 생산효율, 유통효율의 개선과 간접비의 절감이 가능해져 상당한 합리화효과가 기대되며 또 석유산업 전체의 수급균형의 개선을 통한 경영기반의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석유산업은 이와같은 과잉시설처리의 의의를 재인식하고 86년부터 휘발유등의 수입개시에 따라 석유제품 전체의 수입비중이 상승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70만~100만b/d의 처리목표를 상회하는 시설처리의 실시가 기대되고 있다.

이때 합리화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기업단위의 대응으로는 충분한 실효를 기할수 없는 사태도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 그룹화를 추진하거나 그룹內 제휴를 강화하는 것이 적당하다.

나. 시설고도화

앞으로도 日本의 석유제품수요는 더욱 경질화되고 처리되는 원유는 중장기적으로는 重質化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석유산업은 이러한 동향에 따라 白油收率향상을 위한 시설대응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작년 이후 석유제품이 전면수입개방됨에 따라 연산품인 석유제품의 수입량이 변동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탄력적으로 생산收率

을 조정함으로써 안정공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공급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 석유산업의 기반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제부문의 경제성의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원료유의 다양화에 의한 코스트절감을 목적으로 한 선택적 시설운용이 가능한 2차설비체제의 구축이나 새로운 형태의 2차설비 도입에 의한 고도화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석유산업은 각기업 그룹의 정제체제의 특성에 맞추어 비효율적인 과잉설비의 처리와 함께 원료유의 重質化, 다양화나 제품수요변동에 대한 탄력적 대응, 부가가치의 향상을 위한 2차설비의 중점적 배치등을 통해 근본적인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元賣·유통부문의 구조개선

가. 元賣의 집약화

日本の 석유제품공급시스템은 제2차대전 직후의 배급제도를 배경으로 이른바 元賣會社라고 부르는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元賣의 집약화에 있어서는 석유공급시스템의 합리화·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과당경쟁체질을 개선하고, 안정적, 효율적인 공급기반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추진하며, 지금까지 13개社가 11개社 7개그룹으로 집약화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으나, 아직 상술한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앞으로 90년대에 석유공급의 불안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석유제품의 안정적이면서 확실한 공급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主루트를 軸으로 하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석유공급시스템의 중추적 존재인 元賣기업은 합병, 공판회사의 설립 또는 업무제휴의 근본적 강화를 통해 과감한 집약화를 추진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자율적 산업질서의 확립을 위해 어떤 형태의 선도회사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供給루트의 정보화 추진

元賣의 집약화와 함께 各元賣의 공급루트에 대해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은 유통, 재고정보 파악능력의 향상을 통해 공급체제의 효율화를 가져오며, 특히 비상시 기동성있고 신속한 석유제품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日本으

● 정부는 현재의 석유정책의 제도, 운영을 전제로 여러가지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완화에 의해 지나친 혼란을 가져오지 않고, 石油産業의 자율적 기능의 향상이 도모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고 그 착실한 실행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앞으로의 정세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5년 정도의 기간내에 석유산업의 생산, 판매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

로서도 석유공급체계의 기능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석유공급체계의 기능강화는 元賣기업과 유통부문과의 긴밀한 제휴관계 없이는 실현불가능하며, 정보화의 추진에 있어서는 元賣기업은 유통부문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유통부문의 합리화

日本の 휘발유등의 유통부문은 歐美에 비해 中小業세성이 강하고, 경영규모도 작은 日本유통산업 특유의 사정 때문에 효율화, 근대화가 어려운 체질인데다가 최근의 치열한 과당경쟁으로 경영기반도 취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일이 불가피한 과제이다.

따라서 현재 휘발유판매업은 중소기업 근대화추진법에 따라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그 착실한 추진을 기하는 한편 유통부문에서도 정제·元賣단계에서 과잉설비 처리, 집약화등과 병행하여 집약화, 공동화등을 추진하는 등 과감한 합리화가 바람직하다.

#### IV. 石油政策방향

##### 1. 자율적 공급체제를 위한 환경조성

###### (1) 규제의 재검토

가.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공급계획의 책정, 고시등을 통해 앞으로의 석유공급에 대해 일정한 전망을 제시하고, 필요에 따라 행정지도를 펴는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행정은 지금까지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석유수요의 대폭적인 감퇴에 의한 구조

적 수급갭의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대한 구조개선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는 오히려 석유산업에 대해 현상유지의식을 유발하여 구조개선에 전향적인 의욕을 저해하는 측면을 갖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석유정책의 소프트화를 추진하는 한편 그 추진이 시급히 요청되는 석유산업의 구조개선을 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안정확보에 필수불가결한 정책간여를 제외하고 평상시의 주요규제인 석유산업의 생산·판매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여를 과감히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 규제완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제도, 운용을 전제로 여러가지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완화에 의해 지나친 혼란을 가져오지 않고 석유산업의 자율적 기능의 향상이 도모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고 그 착실한 실행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앞으로의 정세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5년 정도의 기간내에 석유산업의 생산, 판매활동에 대한 규제완화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당하다.

① 우선 설비허가제는 설비고도화등 정제부문의 합리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운용을 탄력화한다.

② 석유제품의 공급에 관해 지금까지는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자유로운 수급을 전제로 생산면에서 수시로 수급동향에 맞추어 각사의 생산계획에 대한 지도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석유제품의 공급에 있어서 각사의 자율적 기능이 더 많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별유종의 각사 생산계획에 대한 지도를 늦어도 88년말까지 실시하지 않는다.

또 그 효과의 정착, 석유산업의 경영기반의 강화의 진전 상황등을 보아가면서 늦어도 5년내에는 안정공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유처리량의 생산계획에 대한 지도도 하지 않는다.

③ 등유의 성수기전의 일정량의 재고확보를 위한 지도도 수입의 진전, 생산수율조정능력의 향상등 공급면의 탄력성의 증대상황을 감안하여 점차 재검토한다.

④ 또 작년 10월의 휘발유유통문제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제안한 조치중 나머지 과제인 주유소에 관한 轉籍률과 건설지도의 폐지시기는 개별유종의 지도를 폐지함으로써 시장환경을 정비한 단계에서 폐지하는 것이 적당하며, 늦어도 오는 89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라. 정부는 이러한 규제완화를 착실히 실행하는 외에 보안규제의 재검토, 합리적 거래관행의 확립을 위한 환경정비, 석유관계체계의 석유산업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하는 한편, 규제완화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정유공장의 폐쇄, 과감한 집약화등 각기업만의 대응으로는 충분한 진전을 기대할 수 없는 과제에 대해서는 석유산업의 경영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생산과 수입의 탄력적 조화가 가능한 공급체제의 유지

국제석유시장에서는 산유국의 수출용 정유공장의 건설과 세계적인 정제시설의 과잉을 배경으로 최근 석유제품 거래량이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원유가 거래의 大宗을 이루고 있다.

또 앞으로의 동향도 산유국의 하류부문진출에 있어서는 계획되었던 신규정유공장의 건설은 거의 끝나고, 오히려 소비국의 하류부문의 참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과잉시설에 있어서도 歐美를 중심으로 대폭적인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은 국제석유거래에 있어서 원유가 중심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평상시는 말할 것도 없고, 석유공급이 불안정해지는 시기에는 원유에 비해 제품 쪽이 공급원의 잠재력이 낮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日本의 석유의 안정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산품인 석유제품에 있어서 생산과 수입의 탄력성있는 조화로 국내수요에 맞는 공급이 자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제를 평상시부터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安定확보를 위한 보안책

정부는 II, 2, (4)의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1) 석유비축의 확충

앞으로 예상되는 석유공급의 불안정화에 대해 日本의 에너지공급면에서의 안정확보를 기하면서 석유비축의 확충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 점차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지난 5월 IEA(국제에너지기구) 각료이사회에서 확인된 바 있다.

석유비축의 확충에 있어서는 현재의 국가비축계획을 착실히 추진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후의 추진방향은 국제석유정세의 동향, 국제적 요청, 또는 재원상의 문제등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그 구체적인 검토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특히 비상시 효과적인 비축활용을 위해서는 IEA각료이사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의 통제가 보다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앞으로의 비축확충은 국가비축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당하다. 한편 민간비축은 비축부담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하면서 국가비축의 확충상황을 보아 가면서 일정한도의 경감을 할 것이나 시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비상시 대응체제의 정비

가. 비상시에 정부가 공권력을 적절하고 기동성있게 발동해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변함없으며, 특히 현재의 석유수급적정화법이 가정하는 비상사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도 적절한 대응을 통해 국민생활의 혼란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동성있게 적절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평상시 체제에서 비상시체제로 유연하게 이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나. 두차례에 걸친 석유위기 경험에 비추어 석유위기나 비상시에 기동성있게 적절한 석유제품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석유수요공급동향에 관한 정보의 신속정확한 파악이 대전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보화·추진을 위한 석유산업체제에 대한 소요의 유도 및 지원을 하는 한편, 정부 자체로도 비상시의 재고, 가격동향등에 필요한 정보를 석유산업을 통해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평상시부터 정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화를 위한 시스템체계의 방향에 대해 검토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다. 석유위기가 비상시에는 비축원유의 적절한 관리·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비축방출의 계획은 방출시의 민간비축의 기동성, 신속성, 국가비축의 확실성등을 고려하여 위에 언급한 위기관리체제의 테두리안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에 대해 검토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3) 石油자주개발의 추진

에너지공급기반이 취약한 日本으로서 해외에서 석유자주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공급원의 다각화를 주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석유의 안정공급원의 확보가 가능하고, 또 석유소비대국, 경제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책임을 다하며 산유국과의 관계의 긴밀화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근 원유가격의 하락으로 日本의 석유자주개발여건이 불리해졌으나,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지적해온 바와 같이 자주개발원유의 거래의 안정화와 함께 하류부문의 원유조달능력의 강화하는 관점에서 하류부문과의 밀접한 관계하에서 석유자주개발이 이루어지는 체제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최근의 원유가격의 하락을 배경으로 歐美메이저등이 보유하고 있는 광구의 방출음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바, 현재의 田高현상은 이러한 광구취득에 절호의 기회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제도를 충실히 지키면서 정제원매기업등의 유망한 해외유전취득에 대해서 지원방안의 검토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V. 맺는말

1. 본위원회는 지금까지 石油部會의 소위원회가 중립위원들만으로 구성되었던 것에 대해 원매, 정제, 유통업계의

경영자들에게도 위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산업계의 대응가능성을 감안하여 석유의 안정공급확보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석유산업의 실현을 위해 관민이 취할 역할분담을 전제로 정부, 민간이 제너름대로 해야 할 일에 대해 활발한 토의를 가졌는 바, 석유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정세를 감안하면 일각을 늦출 수 없어 본보고서에 제시한 방향으로 정부와 민간이 각각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2. 본위원회는 석유산업과 석유정책의 기본적 과제에 대해 심의하고, 그 구체적 방향에 대해 제언했는 바, 석유문제는 광범위하여 이번의 심의로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석유비축의 방향, 비상시 정보시스템체계의 방향등은 앞으로의 검토과제이며, 석유관련법제의 방향도 이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상시 석유의 안정공급확보체계의 구축을 기본으로 하면서 비상시대응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체제를 평상시부터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석유산업 기반강화의 진전상황등을 감안하여 추후에 전문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일정한 스케줄에 따른 단계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강력한 석유산업을 실현시켜 간다는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추진방향은 각 기업에 대해 경영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상당한 곤란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석유산업은 용단을 갖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석유산업의 경영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융계, 관련산업계, 노동계관계자의 협력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은 석유산업의 합리화,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국민경제상의 요청을 감안하여 대국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위원회는 기대한다. □

낭비없는 알뜰피서  
약속되는 밝은내일